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전남체고 김은정, 부상 딛고 '금메달 점프'

"날아갈 것 같아요"

30일 제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95회제주전국체전 육상경기 여고부 높이뛰기에 출전한 전남체고 김은정이 173㎝를 넘으며 금메달을 확정짓고 있다. /제주=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높이뛰기 기록 지난해 보다 8㎝ 올려 1m73㎝ 2연패

발목 인대 절단 극복…소년체전까지 합산 4연패 달성

제주 전국체전

"석 달간이나 울고불고 떼를 써 시작하더니 금메달로 보답하네요. 정말 기쁩니다."

부상을 딛고 높이뛰기 금메달을 목에 건 딸 김은정을 바라보며 어머니 정정희(41)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올해 초 오른쪽 발목 인대가 끊어져 선수생명을 위협당했던 딸이 이를 극복하고 한껏 날아올랐기 때문이다.

김은정(전남체고 2년)은 30일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높이뛰기에서 1m73을 넘어 금메달을 차지했다. 지난해 금메달 때(1m65)보다 무려 8㎝를 끌어올린 기록이다. 전국체전 2연패이자, 소년체전까지 합하면 체전 4연패 달성이다.

김은정은 1m70에서 위기를 맞았다. 라이벌 박한나(울산스포츠과학고)가 가볍게 1m70을 넘은 데 반해 김은정은 3차 시기에 가까스로 통과했다. 그리고 3㎝ 더 올린 1m73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썼다. 힘찬 도약으로 1차 시기에 가볍게 바를 뛰어넘으며 기선을 제압했다. 뒤이어 박한나가 3차례 모두 실패하면서 금메달이 확정됐다.

김은정의 금메달은 선수생명을 위협받을 정도의 큰 부상을 이겨낸 선물이어서 더 값지다.

그는 올해 초 춘계대회를 앞두고 훈련 중에 넘어져 발목 인대가 끊어졌다. 봉합수술을 받은 뒤 두 달가량 입원했고, 이후 넉 달 동안 재활치료를 했다. 그리고 두 달간의 훈련 끝에 금메달로 부활했다.

"운동하다가 넘어져 인대를 크게 다쳤어요. 그땐 운동을 그만두려고 했어요. 몹시 아팠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해온 게 너무 아쉽고, 감독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용기를 줬어요. 다시 뛰었죠."

김은정은 금메달을 확정짓자 "너무 값지고 기쁘고 꿈같다"고 좋아하며 양손 검지를 높이 치켜들었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높이뛰기를 시작했다. 당시 체육교사였던 유남호 선생님이 "점프운동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며 권해서다. 하지만 부모는 반대했다. 딸에게 힘든 운동을 시키지 않고 싶어서다. 석 달간이나 부모를 조르며 운동을 안 시켜주면 학교에 안 가겠다며 울고불고 떼를 썼다. 어머니 정 씨는 "매일 아침 떼를 써 아빠 몰래 허락했다. 그런데 첫 전국대회에 출전해 3등을 하는 등 소질을 보였다. 지금은 전적으로 딸을 믿고 응원한다"고 자랑스러워 했다.

/제주=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금메달 행진'

육상 김덕현 3연패 등 각각 7개 획득

29일이 광주의 골든데이였다면 30일은 전남의 골든데이였다.

전남 선수단은 이날 금메달 7개를 쓸어담았다. 레슬링 김성복(전남체고)이 대회 3연패를, 육상 5000m의 백승호(삼성전자)와 높이뛰기 김은정(전남체고)은 2연패를 달성했다. 육상 400m 이미영(순천청암대), 양궁 50m 이은경(순천여고), 사격 공기권총 김모세(전남체고), 태권도 53㎏급 임금별(전남체고)은 처음으로 전국체전을 제패했다.

김성복은 제주관광대 체육관에서 열린 레슬링 남고부 자유형 63㎏급 결승에서 대전체육고 김용학을 테크니컬폴승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안았다. 대회 3연패다.

육상에서는 3개의 금맥을 캤다. 전남육상 장거리 대들보 백승호가 5000m에서 14분18초98로 가장 먼저 골인하며 대회 2연패를 기록했다. 여대부 400m에서는 이미영이 57초34로 금빛 질주를 선보였고, 여고부 높이뛰기에서는 이은정이 1m73을 뛰어넘어 금메달을 차지했다.

샛별 이은경은 성산고운동장에서 열린 양궁 50m에서 336점을 쏴 광주체고 김채윤을 1점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30m에서는 최미선(전남체고)이 353점으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태권도에서는 임금별이 여고부 53㎏급에서 금빛 발차기를 선보였다.

전국체전 셋째날인 30일 오후 6시 현재 전남은 금 19개, 은 20개, 동 43개를 획득했다.

광주는 육상과 수중핀수영에서 선전하며 7개의 금메달을 추가했다. 전날 수중핀수영 무호흡잠영 50m에서 금메달을 딴 김태균(광주시체육회)은 이날 호흡잠영 100m에서 31초92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2관왕에 올랐다. 여자일반부 표면 50m에서는 장예솔(광주시체육회)이 17초55로 가장 먼저 골인, 100m에 이어 또 한번 대회 신기록 갈아치웠다.

인천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 김덕현(광주시청)은 육상 멀리뛰기에서 8m04를 날아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한정미(광주체고)는 여고부 400m에서 55초43으로, 신동민(한국방송통신고) 남고부 110m허들에서 14초33으로 금빛질주해 대회 신기록을 갱신했다.

체조 에어로빅3인조 경기에서는 구수연·김형진·임세윤(광주체고)이 환상의 금빛 연기를 선보였다. 김제엽(한국가스공사)은 태권도 68㎏급에서 연장 접전 끝에 금메달 1개를 추가했다.

광주는 금 13개, 은 16개, 동 25개를 확보했다.

/제주=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인기짱' 기보배

가는 곳 마다 팬들 사인 요청

이모저모

○…기보배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다. 기보배는 지난 29일 제주 성산고운동장에서 열린 여자일반부 리커브 양궁 60m와 70m에 출전했다. 성산포의 강한 바람에 기보배·이특영 등 정상급 선수들이 고전했다. 기보배도 이날 70m에서 339점을 쏴 5위, 60m에서 343점으로 16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하지만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200여명의 선수가 도열한 운동장에서 유독 기보배 주위에만 관중이 몰렸다.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인천아시안게임 양궁 해설자의 유명세 덕이다. 그리고 사인공세도 이어졌다. 경기를 마친 기보배에게 30여명의 팬들은 그의 사진과 책을 들고와 사인을 요청했다. 초콜릿을 선물하는 팬도 있었다. 미녀 궁사 기보배는 스타답게 미소지으며 쿨하게 사인에 응했다. /제주=박정욱기자 jwpark@

지난 29일 제주 성산고운동장에서 열린 제95회 전국체전 양궁 경기 도중 광주시청의 기보배가 팀동료들과 얘기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제주=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FC, 4강 불씨 살린다

K리그 챌린지 34R 내일 안산과 일전…4위 강원과 승점 1점차

광주 FC가 '4강 전쟁'을 위해 안산으로 간다.

광주 FC가 오는 1일 오후 2시 안산와스티디움에서 K리그 챌린지 34라운드 안산과의 원정경기를 갖는다.

대전(승점 63)의 1위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산(승점 54)은 2위 자리를 지키며 챌린지 리그 4강 안정권에 있다. 반면 광주는 승점 47을 기록하면서 안양(승점 49), 강원(승점 48)에 이어 5위에 머물러 있다.

광주에게 남은 경기는 3경기.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얻기 위해서는 4위 자리가 필요하다. 광주가 안양, 강원과 박빙의 승점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뒤에서는 수원 FC(승점 45), 대구(승점 43)가 추격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는 앞선 33라운드 대전과의 홈 폐막전에서 임선영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두며 4강 플레이오프 티켓의 불씨를 살려두었다. 선두 대전을 잡으며 분위기를 살렸지만 이번 승부가 만만치는 않다. 광주는 안산과의 세 차례 맞대결에서 1무2패를 기록하는데 그치며 열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경기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전망이다.

광주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매서워진 임선영의 발끝이다. 임선영은 지난 대전전에서 외국인 공격수 파비오와 찰떡 호흡을 선보이며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다.

안산은 앞선 강원과의 경기에서 신들린 선방으로 9개의 유효슈팅을 막아낸 골키퍼 전태현이 핵심 전력이다.

물오른 광주의 공격과 안산의 탄탄한 수비 맞대결에 관심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